

저소득·다자녀 대학교 등록금 면제 교·사범대생 2만명 초·중·고 멘토링

교육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

희망 학생 교과보충 수강료 지원

3월25일부터 기초학력보장법

유치원·어린이집 학비 2만원 ↓

코로나19 유행이 3년차를 맞는 내년 예비교사 2만명이 초·중·고교생을 만나 학습결손 문제 극복을 돕는다. 교육부는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대폭 늘렸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교육부 소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3월부터 1년간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학생이 추천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고교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는 대학생에겐 국가근로장학금이 주어지고, 교대나 사범대생은 봉사시간 최대 60시간, 2학점까지 인정한다.

원격수업으로 학교 등교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

들에게 수강료를 지원하는 '교과보충 프로그램' 예산은 1000억원 가량 늘었다. 특별교부금 3200억원이 집행된다.

기초학력보장법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이 법은 교육부가 5년마다 관계기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학교가 자체 진단 검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할 수 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해 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이다.

내년 교육비 부담도 올해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둘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면제한다. 셋째 이상 자녀는 고소득 계층이 아니면 대학 등록금이 사실상 면제된다. 올해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975만2580원(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여야 한다.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석사과정 6000만원, 박사과정 9000만원까지다. 다만 올해 기준 월 소득이 438만

8661원(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보다 적어야 하며 만 40세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지난해보다 2만원이 오른다. 이를 통해 국공립유치원 학비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월 28만원을 나라가 지원한다.

초·중·고교 저소득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도 지난해보다 평균 21% 오른다. 초등학교는 15.7% 오른 33만1000원, 중학교는 23.9% 상승한 46만 6000원, 고등학교는 23.7% 인상한 55만4000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급자 대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취지에서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은 월 소득이 4인가구 기준 월 256만원(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법을 통과로 오는 7월21일 출범할 예정이다.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초당파적으로 수립하는 취지를 담은 이 기구는 대통령이 지명한 5명, 국회의원 4명, 비교섭단체 몫 1명 등 위원 2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5·18민주묘지 참배로 새해 시작 전남대학교가 2022년 새해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로 시작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3일 한은미 교수평의회 의장, 이강래·조기량 부총장 등 보직교수, 조성희 총동창회장과 임원 등 모두 40여명과 함께 국립묘지와 구 묘역에 안장된 전남대 관련자 32위에 대해 각각 헌화하고,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전남대 제공>

동강대, 국제개발 협력 전문가 키운다

2년 연속 KOICA '증진사업' 선정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국제 보건 전문가를 키운다.

동강대는 최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관하는 '2022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에 선정됐다.

KOICA 사업은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이해증진과 세계시민 의식 함양, 관련 분야로의 진로탐색 지원, KOICA-대학 간 상호협력 파트너십 강화 등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동강대는 2019년에 이어 2021-2022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동강대는 사업 첫 해 대학 내 임상병리과 등 보

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과목을 개설하고 의료봉사 경험이 많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해외 현장 활동, 중·고교 재능기부 등을 펼쳤다. 특히 코이카 사업을 10여 년 간 담당해 온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외협력부의 도움을 받아 인도네시아 반다야제주 베사르에서 합동건강검진, 보건교육 등 봉사활동을 펼치며 글로벌 보건 전문가로서 자질을 쌓았다.

또 최근에는 화순지역 아동센터 2개 기관을 방문해 초·중학생들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해남 송지초 '일상회복과 함께 하는 나눔 바자회'



해남 송지초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하는 당신 근처의 시장(당근시장) 나눔 바자회'를 열고 코로나19 극복과 희망찬 새해를 염원했다. 당근시장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송지초등학교의 나눔 바자회 행사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부하면 전교학생회가 적절한 가격을 책정해 사고파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광주대, 간호대학 실습 교육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실습 교육 지원사업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간호학과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도 간호대학 실습 교육 지원사업'에서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됐다.

간호대학 실습 교육 지원사업은 간호대학생들에 대한 임상 실습 및 실기교육 강화를 통해 신규 간호사들의 병원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의료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대 간호학과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학과 실습교육지원 수행기관으로 선정, 총 2억6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물레이

션 실습실을 확장하고 2021년에는 시물레이션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모든 전임교원이 시물레이션 실습 교육에 참여하는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김은영 광주대 간호학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물레이션 실습 교육을 통해 간호학과 학생들의 간호 실무능력향상과 실기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간호 실무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의료 질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특성화고 현재 정원서 10% 이상 줄여야"

광주교사노조, 인원 조정 촉구

광주 지역 일반고와 특성화고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내 고입 예상학생 약 1만3600명 중 특성화고 입학정원 2300여명을 제외한 1만1300명을 일반고에 배정했다.

하지만 앞서 이뤄진 특성화고 1~2차 모집에 300명 정도가 미달함에 따라 일반고에 배정 인원보다 300명 정도 초과 접수가 이뤄져 탈락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교사노조는 "일반고 기배정 인원은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것"이라며 "광주시교육청은 일반고 진학 희망학생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현재 광주 지역 전체 특성화고 결원 인원은 1학년 358명, 2학년 385명, 3학년 442명이다"며 "고등학교 진학 추세 등을 살펴볼 때 특성화고 정원을 10% 이상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광주교사노조는 이 같은 구조조정과 함께 일반고 배정인원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광주시교육청의 변화를 촉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